



주간통일정세 2008-08(2008.02.18 ~ 02.24)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 주간 통일정세

2008-08

##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 I. 북한동향

### 1. 대내정세

#### 가. 경제 관련

- **양보다 질 향상 위주의 생산 강조(2/22, 조선신보)**
  - “사람들이 아무거나 입는 시대는 지나갔다. 제품의 질이 보장되는 것이 첫째 조건이다.” 라는 강서편직공장(속옷공장)의 리혜철(49) 지배인의 말을 인용, 양보다 질의 향상을 강조하는 상품생산 독려
- **‘소비자 취향을 강조한 기술혁신 요구(2/20, 조선신보)**
  - 평양화장품공장의 경우, 기술혁신을 위해 “우선 화장품을 쓰고 사는 인민의 요구를 청취하는 것부터 시작”했으며,
  - “그것을 실리를 얻기 위한 활동의 기준으로 삼고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나서는 기술적 문제들을 풀어나갔다”고 소개
- **군대 외화벌이 통제(『오늘의 북한소식』, 112호)**
  - '07년 연말, 군부대 명칭으로 된 무역 회사들과 국가가 정식으로 인정하지 않은 무역회사들을 일체 재정리하라는 방침이 12월 23일 있었으며,
  - 지난 2월 1일 모든 군부대들에서 군부 출장소와 군부 산하 외화벌이 회사를 없애고 강성(건설한) 무역회사를 살릴 수 있도록 기구를 줄여야 하며,
  - 지방에서는 군부보다 당 기관을 우선 내세워야 한다는 내용의 지시문을 각 도(道)에 내려 보낸 것으로 알려짐.

#### 나. 사회·문화 관련

- **남북 여자축구 북한승리에 대한 신속한 보도(2/24, 조선중앙방송)**
  - 중국 충칭시에서 열린 2008 동아시아축구대회 여자부 풀리그 최종전에서 북한 대표팀이 남한을 상대로 승리했다는 소식을 신속하게 보도
- **강성대국 위한 정치사업으로 대중체육활동 강조(2/23, 노동신문)**
  - “대중체육사업은...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또 하나의 정치사업”이며,
  - “체육은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사업”임을 강조
- **고려 학자 이제현 묘지석 발굴 보도(2/22, 평양방송)**
  - 황해북도 장풍군 십탄리 서원동에 있는 고려 후기 문신이자 학자인 익재 이제현(1287~1367)의 무덤에서 묘지석을 새로 발굴했다고 보도



- **북한 김금옥, 아시아 마라톤 우승 보도(2/19, 조선중앙TV)**
  - 여자 마라토너 김금옥이 2월 17일 중국 홍콩에서 열린 제11차 아시아 마라톤선수권대회에서 우승했다고 보도
- **함북인민병원, 무균화로 항생제 없이 수술(2/19, 조선신보)**
  - 함경북도인민병원이 수술실을 외부와 차단시키고 무균화 방법으로 최근 6개월간 70여명의 환자를 항생제 없이 수술, 완치시켰다고 보도

## 2. 대외정세

### 가. 북·미 관계

- **뉴욕필 평양공연 여러 매체 예고 보도**
  -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노동신문 조선신보가 22일 미국 뉴욕 필하모닉의 평양공연 사실을 공식 보도
- **‘키 리졸브’ 훈련에 대한 비난 및 경고(2/20, 조선중앙방송)**
  - ‘키 리졸브’ 연습에 대해 ‘북침전쟁연습’이라 비난하고,
  - “도발에 강력한 보복으로 대답하고, 불은 불로 다스리는 것이 우리의 기질이며 대응방식”이라고 경고

### 나. 북·중 관계

- **저우언라이 방북 50주년 기념행사 개최(2/18, 연합; 신화통신)**
  - 북한이 18일 저우언라이(周恩來) 전 중국 총리의 방북 50주년을 맞아 평양에서 기념집회와 영화 감상회를 개최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

### 다. 북·일 관계

- **대북 ‘편지풍선’ 계획 일본단체에 대한 비난 강화(2/20, 조선중앙통신)**
  - 일본의 민간단체 ‘특정실종자문제조사회’가 북한에 있는 납치 피해자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풍선 등을 통해 북한에 들여보내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반공화국(북한) 음모”라 비난
- **이시하라 망언에 대한 규탄(2/20, 조선중앙통신)**
  - 일제의 침략전쟁이 식민국가들을 해방시켰다는 일본 극우정객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郎) 도쿄도지사의 망언 관련, “우리 인민과 아시아나라 인민들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으로 규탄
- **6자회담에서 일본 제외 주장(2/19, 민주조선)**
  - 일본이 한반도 핵문제와 같은 “예민하고 중요한 문제”를 다룰 정치적



능력이 없다며 스스로 회담장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

라. 북·러 관계

- ‘조국수호자의 날’ 기념 연회 개최(2/23, 조선중앙통신)
  - ‘조국수호자의 날’을 맞아 알레리 수히닌 북한주재 러시아 대사가 22일 평양 대동강외교단회관에서 연회를 개최했으며,
  - 이날 연회에는 박재경 인민무력부 부부장 등이 참석
- 김영춘, 러시아와 친선발전 입장 일관(2/21, 평양방송)
  - 김영춘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은 20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 연회에 참석, “전통적인 조(북)·러 친선을 귀중히 여기고 끊임없이 공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두 나라 인민의 염원과 이익에 부합되며 조·러 관계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일관하다”고 강조

마. 기타외교 관계

- 팔레스타인 대사, 김정일 생일 축하 연회 개최(2/24, 조선중앙통신)
  - 마하마드 조로브 북한주재 팔레스타인 대사가 23일 대사관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66회 생일(2.16)을 기념하는 연회 개최
  - 연회에는 박의춘 외무상과 최창식 보건상, 김병팔 조선직업총동맹 위원장 등이 참석
- 몽골 농업·식료·자연환경부문 근로자동맹 대표단 방북일정 마친 후 23일 귀국(2/23, 평양방송)
- 쿠바와 관계발전 노력 지속 강조(2/23, 조선중앙통신)
  - “최근 피델 카스트로 동지는 쿠바 공화국 국가이사회 위원장과 무력 최고사령관의 직무를 더 이상 맡지 않겠다는 의향을 밝혔다”면서
  - “우리 인민은 피델 카스트로 동지를 가장 친근한 전우로, 동지로 여기고 있으며 형제적 쿠바 인민과 친선관계를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

### 3. 대남정세

- 통일부, 뉴욕필 공연 관련 101명 방북 승인(2/24, 연합뉴스)
  - 통일부는 26일로 예정된 뉴욕필의 평양공연을 취재하거나 관람할 인사 101명에 대해 방북을 승인했다고 24일 발표
- 남북평화재단 경인본부 출범(2/22, 연합뉴스)
  - 인천·경기지역 각계 인사로 구성된 남북평화재단 경인본부는 22일 오



후 인천 수림공원(음식점)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

● **남북 문학교류 난기류(2/22, 연합)**

- 남북 문학 교류의 첫 열매인 남북 공동의 문학잡지 '통일문학' 창간호에 대해 통일부가 일부 구절을 문제삼으며 반입 불허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조총련 소속 시인들의 입국에 제동이 걸림.

● **경남, 북한에 거창사과 과수원 조성(2/21, 연합)**

- 경남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올해는 사과 과수원 조성과 수해복구 주택 복구 지원 등으로 확대  
- 올해 세부적인 사업으로는 그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벼 및 채소 중심의 농업분야 사업을 병행하면서 거창사과 묘목으로 평양 인근에 과수원(3ha)을 조성하고 수해 피해를 본 주택 10채 복구, 10월 경남에서 열리는 랍사르 총회 북한대표 참석 등 신규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이창희 정무부지사가 3월 중 방북, 개성에서 북측 관계기관과 의견을 조율하고 사업내용을 확정하는 남북합의서를 교환할 예정

● **북한에 콩·보리재배단지 조성(2/20, 연합)**

- 김포시는 오는 5월부터 북한 평양과 개성 중 1곳에 10ha규모의 콩과 새찰쌀보리 재배단지를 조성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발표  
- 대북 민간 교류협력사업단체인 '평화3000'의 제의로 이뤄진 이번 사업은 토지와 노동력은 북측, 기술은 김포시가 각각 지원하며 종자 구입비 등의 비용은 '평화3000'이 부담

● **북핵 불능화 대가 설비자재 2차 지원분 22일 출항(2/19, 통일부)**

- 북한의 핵 신고와 불능화의 대가로 남측이 북한에 제공기로 한 에너지 관련 설비·자재의 2차 지원분이 22일부터 해상으로 북측에 전달된다고 통일부가 19일 발표

● **남북, 보건의료협력 현지조사 19~23일 실시(2/18, 통일부)**

- 남북은 19일부터 23일까지 당국 간 보건의료협력을 위한 북한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통일부가 18일 발표  
- 남북은 2007년 12월 말 열린 '제1차 보건의료·환경보호협력분과위'에서 2008년 1월 중 현지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으나 그동안 일정 협의가 지연

● **대북 경공업 원자재 372만불 상당 20일 출항(2/18, 통일부)**

- 통일부는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사업에 따라 북한에 제공키로 한 8천만달러 상당의 경공업 원자재 중 24번째 항차분 배송을 20일 착수한다고 18일 발표



- 북한, 신정부 남북정상선언 '재검토' 입장 비난(1/26, 주간통일신보)
  - 이명박 당선인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용한 표현을 직접 인용하며 “온당치 못한 잡소리”라고 맹비난하면서 “10·4선언을 깎아내리고 실천을 꾀방하고 있으니 이보다 더한 반시대적, 반통일적 망동은 찾아볼 수 없다”고 비난

북한연구실 제공

## II. 동북아정세

### 1. 대북한 관련

#### 가. 6자회담

- 힐 · 김계관, 베이징 회동(2/19)
  -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베이징에서 북한측 대표인 김계관 부상과 만나 북핵 신고 문제 등을 논의했으나 뚜렷한 합의안 마련에 실패했음.
- 천영우 · 김계관, 베이징 양자회동(2/21)
  - 북핵 6자회담 남북한 수석대표인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베이징에서 만나 북핵 신고 문제와 6자회담 재개 방안 등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음.
  - 천 본부장은 “북측은 10·3 합의의 순탄하고 완전한 이행 의지를 재확인시켰으며 우리는 경제·에너지 실무그룹 의장국으로서 우리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했다”고 말했다.
  - 그는 “북한측에서는 지금 단계가 기술적인 지연이지 교착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정치적인 의지를 갖고 의무를 이행 안하는 것도 아니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 그는 6자회담 재개 전망을 묻는 질문에 “북한은 언제든지 중국이 회담을 소집하면 나올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 남 · 북 · 중, 대북 에너지설비 지원 논의(2/21~22)
  - 지난해 11월(중국 선양)과 12월(평양)에 이어 3번째로 열린 이번 3자 협의에서 임성남 외교부 북핵 외교기획단장이 이끄는 한국대표단은 주중 대사관에서 현학봉 북한 외무성 미국국 부국장, 천나이칭(陳乃淸) 중국 외교부 한반도담당대사 등 북한 및 중국대표단과 북한에 우선적으로 지원키로 한 에너지 설비·자재 제공 문제 등을 논의했음.
  - 한·미·중·러 4개국은 6자회담 ‘2·13 합의’ 및 ‘10·3 합의’와 부속 합의에 따라 북한의 신고·불능화 이행의 대가로 북에 중유 45만t



- 과 중유 50만t 상당의 에너지 관련 설비·자재를 제공기로 한 바 있음.
- 임 단장은 “이번 회의는 기술적인 협의이기 때문에 앞으로 각 채널을 통한 추가협의를 거쳐 실제로 지원될 품목 등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 북측은 불능화 속도에 비해 대북지원 속도가 그만큼 빠르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 실제로 북한은 자신들이 취해야 할 비핵화 조치 중 불능화는 80% 이상 이행된 반면, 6자회담 당사국 중 나머지 5자가 제공기로 한 경제·에너지 지원은 23% 정도밖에 제공되지 않은 것에 대해 불만을 표출해 왔다.

#### 나. 미·북 관계

- **미 전문가, “북핵 불능화 추진 불구 재가동 불능상태 아니다”(2/21)**
  - 북한이 영변 핵시설의 불능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핵연료봉 등이 폐기되지 않은 상태로 보관되고 있기 때문에 핵시설을 재가동하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는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됐음.
  - 컬럼비아 대학 「웨더헤드 동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인 조엘 위트는 워싱턴 존스홉킨스대 국제대학원(SAIS) 「한·미연구소」가 “최근의 두 방문자가 본 2008년 북한”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최근 스탠퍼드 대학의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와 함께 북한의 영변 핵시설을 둘러보고 북한 외교관리들을 만나고 돌아온 소감을 이 같이 밝혔다.
- **미 전문가, “이명박 정부, 남북정상회담의 북 개혁과 연계해야”(2/21)**
  - 새로 출범하는 한국의 이명박 정부는 작년 10월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 가운데 한국경제에 직접 혜택이 되는 것과 정치적 동기에서 추진된 것을 구분, 정치적 성격의 사업은 북한의 정치·경제개혁 추진과 연계해 이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음.
  - 미국의 대표적 싱크탱크 가운데 하나인 「헤리티지재단」의 한반도 전문가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주미대사관 홍보원 주최 강연에서 오는 25일 출범하는 이명박 정부에게 ‘원칙 있는 대북 포용정책’ 추진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권고했음.
  - 뿐만 아니라 그는 북한이 모든 핵프로그램 신고, 영변 핵시설 불능화 등 6자회담 합의를 이행하지 않아 교착상태가 계속될 경우를 대비해 비상대책을 강구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를 완전히 이행토록 하기 위해 금융제재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 **헤커 교수, “북, 파키스탄·시리아와의 핵거래 부인”(2/23)**
  - 북한을 방문(2/12~16)했던 미국 스탠퍼드대학의 지그프리드 헤커 교수는 파키스탄의 칸 박사가 핵기술 이전을 시인한데 대해 북한 측은 “그것은 당신들의 이야기”라며 일축했다고 말했다.



- 북한은 또 작년 9월 이스라엘이 폭격한 시리아의 핵 추정 시설과 관련해 자국과의 연관성을 전면 부인했다고 헤커 교수는 설명했다.

● 『뉴스위크』, “부시, 외교정책 업적 위해 북핵 해결 부심”(2/23)

- 임기를 1년도 채 남겨놓지 않은 조지 부시 대통령은 외교정책 업적을 남기기 위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는 대가로 핵프로그램을 폐기토록 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고 미국의 시사주간지인 『뉴스위크』 인터넷판 최신희(3월3일자)가 보도했음.
- 잡지는 특히 수렁에 빠져들고 있는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사태, 아랍·이스라엘 평화협상의 예정된 실패 등이 부시 대통령으로 하여금 더욱 북핵 문제 해결에 몰두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뉴욕필, 평양 공연(2/26)

-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역사적 평양공연에 나서는 뉴욕 필하모닉이 거슈윈의 '파리의 미국인'을 연주하는 것에 빚대어 '평양의 미국인'이 북한에 변화를 가져와 북·미관계의 해빙 무드에 일조할 수 있을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보도(2/21)했음.
- 신문에 따르면 이번 뉴욕필 평양공연 수행 인원은 연주자 130명을 포함해 280명에 달해 2000년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 방북시 수행했던 100명을 크게 넘어서며 휴전 이후 최대의 미국인 방북단이 됨.
- 신문은 또 이번 공연에 1,400명 가량의 북한 관객들이 참석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십 년간 미국을 증오했고 두려워하도록 교육받아온 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확실치 않다고 전했다.

● 포린 어페어즈, “북한, 개혁 가능성 난망”

- 북한은 국제사회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내부 개혁에 나설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미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즈」 최신희가 보도했음.
- 「포린 어페어즈」 3~4월호는 '연명하기: 북한이 변화하지 않을 이유'란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의 기고를 통해 한국과 중국 등 이웃 나라들은 북한 체제의 붕괴를 막기 위한 체제개혁을 열망하고 있지만 북한은 결코 변화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음.
- 북한 김정일 정권은 미국의 안보 보장은 별 도움이 안된다고 보는 반면, 체제에 대한 최대 위협은 외세가 아니라 내부 주민들의 불만을 직시하고 있기 때문에 개혁이 아니라 최대한 현상 유지를 추구하려 한다는 것임.
- 북한 지배층은 특히 개혁으로 주민통제가 약화될 경우 15만여 명에 달하는 정치범과 그 가족들의 보복위협에 직면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음.



다. 중·북 관계

● 중 지린성, 북 무역회사에 인민폐 무역결제 허용

- 중국 지린(吉林)성이 국내에서 활동하는 북한 무역회사에 대해 인민폐로 무역대금 결제를 허용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무역결제 제도를 시행키로 했음.
- 연변(延邊) 조선족자치주에 따르면 지린성은 연지(延吉)에서 대북 무역결산 개혁공작 개시회의를 개최(2/20)하고 국가외환관리국 지린성 분국이 제정한 '지린성 변경무역 외환관리 실시세칙'을 정식으로 공표하고 중국에서 활동하는 북한 무역회사와 개인에 대해 인민폐 무역전용계좌 개설을 허용키로 했음.
- 이번 조치는 현금위주로 이뤄져왔던 북·중 무역대금 결제가 금융기관을 통한 정상적 송금결제로 바뀔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됨.

라. 일·북 관계

● 후쿠다 총리, 대북 유화노선 시사(2.22)

- 후쿠다 총리는 한국 방문을 앞두고 한국 주일 특파원들과 총리실에서 가진 공동 인터뷰에서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지만, 인내심을 갖고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며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임 정권의 강경 일변도에서 유화노선을 취할 것임을 시사했음.
- 그는 특히 고이즈미 당시 총리의 방북시 채택한 평양선언(2002.9)의 구체적인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선언이 북한으로서도 나쁘게 아무 것도 없는 매우 좋은 내용으로, 선언의 이행에 노력해야한다"고 촉구했음.

2. 주변국 관련

가. 중국 관계

● 중, 대형 조기경보기 양산체제 갖춰

- 중국이 쿵징(空警-2000)이란 대형 조기경보기의 생산을 시작해 공중 조기경보통제기(AWACS) 양산 체제를 갖췄다고 중국 언론들이 보도(2/21)했음.
- 「중국항공보」 등에 따르면 중국은 1994년부터 추진해 오던 조기경보기 모델 개발에 성공해 최근 시험비행을 마쳤고 항공기제조사인 「중국1항(-航)」에서 생산라인을 갖춰 양산 체제에 돌입했음.
- 이 경보기는 5천~1만m 상공에서 반경 400km 이내의 목표물 수습 개를 한꺼번에 추적할 수 있어 중국 동북부에서 한반도 대부분의 지역



을 감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나. 한·미 관계

- **미 전문가, “이 당선인, 중 지도자에 탈북자문제 제기해야”(2/20)**
  -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한 뒤 탈북자 문제해결에 나서야 하며 이를 위해 중국 정치지도자와 만나게 되면 탈북자 강제복송 및 중국 내 탈북자 인권문제를 적극 제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음.
  - 비정부기구(NGO)인 「북한 인권위원회」의 피터 벡 사무총장은 이날 워싱턴 D.C.내 한국문제에 관심 있는 젊은 세대들의 모임인 ‘세종 소사이어티’ 초청 강연에서 25일 출범하는 이명박 정부의 과제 중 하나로 북한 인권문제를 꼽으며 이같이 밝혔다.
  - 그는 이어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한국은 미국에 대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에 한국이 군대를 다시 파견할 경우 미국에겐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다. 한·일 관계

- **후쿠다 총리, “미래 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이 중요”(2/22)**
  - 일본의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총리는 한·일 양국 관계에 대해 과거를 직시, 한국민의 심정을 이해하고 반성할 것은 반성하면서 “미래 지향적인 우호·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후쿠다 총리는 이날 총리실에서 한국 방문을 앞두고 한국 주일 특파원들과 가진 공동 인터뷰에서 양국간에는 미래를 향해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 “그 가능성을 크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어떤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지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후쿠다 총리, 방한(2/24~25)**
  -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총리가 이틀간 일정으로 서울을 방문,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에 참석하고 정상회담을 가진 뒤 귀국할 예정이다.
  - 정상회담에서는 양국간 미래지향적 우호 협력관계를 한층 강하게 진전시키는 것과 북한 문제 등 공동 과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 라. 중·일 관계

- **탕자쉬안, 방일(2/20)**
  - 탕자쉬안(唐家璇)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오는 4월로 예정된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의 방일 준비를 위해 일본을 방문했음.



● **중·일, 제8차 전략대화 개최(2/22~23)**

- 베이징(北京)에서 개최된 이번 전략대화에는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야부나가 미토지(藪中三十二) 일본 외무성 외무심의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해 양국의 당면 문제인 농약만두 사태 및 동중국해 문제 등을 비롯해 각 분야에 걸쳐 양국의 현안과 발전 방안을 논의했음.

● **중, 미·일 양국에 정부간 3자 정기대화 타진**

- 중국 정부가 미국과 일본 양국 정부에 3자 정기대화를 개설하는 방안을 타진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보도(2/23)했음.
- 환경 문제와 에너지 대책, 북한 문제 등 국제 현안을 협의하는 장으로 외무차관, 국장급 외에 정상이나 외무장관 회의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 3국간에는 이미 미·일, 미·중, 일·중 등 각각 외무차관급 대화가 있기 때문에 이를 3개국으로 확대할 경우 외교 무대에서 미·일·중 3국을 축으로 한 연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신문은 내다봤음.

☀ 동북아연구실 제공